

 제주특별자치도 Jeju Special Self-Governing Province	보도자료	2025. 10. 21.(화) <b>즉시</b> 보도 가능		
기후환경국	환경정책과장	강승향	☎	710-6010
	기후환경협력팀장	김선주	☎	710-6383

## 제주도, 세계은행과 글로벌 녹색성장 협력 강화

- 오영훈 지사, 20일 세계은행 경제·디지털 분야 주요 인사와 협력방안 논의 -

- 제주특별자치도와 세계은행이 글로벌 녹색전환을 위한 연대의 필요성에 공감하고, 녹색성장과 디지털 전환 분야에서 상호 협력을 강화하기로 했다.
- 오영훈 제주도지사는 20일(현지시간) 미국 워싱턴DC 세계은행(World Bank) 본부를 방문해 세계은행그룹(WBG) 주요 인사들과 잇달아 만나 지속가능 발전을 위한 구체적 협력방안을 논의했다.
- 오영훈 지사는 이날 오전 리처드 다마니아(Richard Damania) 세계은행그룹 수석경제학자 겸 부총재를 만나 ▲그린수소 생태계 조성 ▲농업 디지털 플랫폼 ‘제주DA’ 구축 ▲지속가능한 관광 전략 등 제주의 선도적 모델을 공유하며, 이러한 성과가 국제사회에 확산될 수 있도록 세계은행 차원의 적극적 지원과 협력을 요청했다.
- 그린수소 실증사업과 관련해 오 지사는 “제주도는 산업자원통상부와 민간업체의 투자로 그린수소 생산부터 버스 운영까지 전 과정을 실증하고 있다”며 “나미비아 등 여러 국가에서 적극적인 협력을 요청하고 있는 만큼,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을 통해 제주의 그린수소 모델이 개발도상국에 전파될 수 있도록 적극 협력해달라”고 당부했다.
- 이어 농업 디지털 플랫폼 ‘제주DA’에 대해서는 “농가들이 모바일로 직접 참여하는 디지털 플랫폼을 구축해 영농 규모, 작황상태, 농산물 가격 등 모든 영농 정보를 한 시스템에서 확인할 수 있도록 했

다”고 설명했다. 특히 “구술로 영농일지를 작성할 수 있는 기능을 탑재해 문자 해독이 어려운 개도국 농민들도 쉽게 활용할 수 있다”며 “녹색성장기금 취지에 부합하는 프로젝트라는 점에서 다른 지역에 확산될 수 있기를 기대한다”고 전했다.

- 아울러 재생에너지 100%(RE100)가 보장되는 숙소와 이동수단을 활용한 ‘탄소 배출 없는 관광지’ 조성 등의 사례를 소개하며 “지속가능한 관광 정책을 실현하기 위해서는 관광의 품질을 높이면서 적절한 수준의 관광객을 유지하는 것이 중요하다”고 설명했다.
- 다마니아 부총재는 “제주도의 그린수소, 디지털 농업, 지속가능한 관광 정책의 사례는 세계은행 녹색성장기금의 방향과 연관성이 매우 높다”면서 “특히 농업생산성이 잠재력의 3분의 1에 불과한 아프리카 국가들에 ‘제주DA’ 같은 저비용 고효율 플랫폼이 큰 도움이 될 것”이라고 평가했다. 이어 “제주의 선도적이고 중요한 사례를 농업 세션에서 발표하고, 개도국과 협력기회를 모색하겠다”고 덧붙였다.

□ 오영훈 지사는 김상부 디지털 부총재와 디지털 전환 분야 협력을 논의했다.

- 오영훈 지사는 “제주도가 분산에너지 특구로 최종 선정되면 내년부터 가상발전소(VPP) 기반의 독자적 분산전력망을 운영하게 된다”며 “재생에너지, 기저전원, 유연성자원을 인공지능 기반으로 효율적으로 운영하는 이 비즈니스 모델은 송전망이 연결되지 않은 개도국 소단위 마을에 적용 가능한 만큼 세계은행에서 제주의 분산에너지 모델에 적극적으로 관심을 가져달라”고 요청했다.
- 김상부 부총재는 “섬 지역이나 전력 소외 지역, 농업 의존도가 높은 국가들에 제주도의 선진 사례는 큰 영감을 줄 수 있다”면서 “제주도의 사례들이 많은 국가에 전파될 수 있도록 제주도와 세계은행

간 교류가 더욱 활발하게 이뤄지길 기대한다”고 전했다.

□ 제주도는 지난해 제주에서 개최된 ‘제13회 한국 녹색혁신의 날’을 통해 녹색성장 정책 성과를 국제사회와 공유하며, 국제 녹색성장 네트워크 구축의 기반을 마련했다.

○ 오영훈 지사는 세계은행 인사들과의 면담에 앞서 지난해 제주도와 세계은행 간 국제 녹색성장 네트워크 구축에 크게 기여한 오정진 녹색성장기금 담당관에게 제주명예도민증을 수여했다.

□ 제주도는 세계은행 등 국제기구와의 협력을 확대해 녹색성장과 탄소중립 실현을 위한 국제협력 거점 역할을 강화해 나갈 계획이다.